

『이자수어(李子粹語)』 편찬에 나타난 성호의 퇴계학 계승의식

박지현

삼육대학교 강사, 동양철학 전공

pjhsky27@snu.ac.kr

- I. 머리말
 - II. 『도동록(道東錄)』과 성호의 도통의식
 - III. 『이자수어』 편찬 과정
 - IV. 『이자수어』 편찬 의의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1023849).

I. 머리말

이 글은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이 이황 학술을 총정리하기 위해 기획한 『이자수어』 편찬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호는 이황 철학에 대한 비판적 계승을 바탕으로 율곡학과의 호락논쟁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철학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이익의 이황에 대한 계승 의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자수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수어』는 『사칠신편(四七新編)』, 『이선생예설유편(李先生禮說類編)』과 더불어 성호의 퇴계학 연구에 대한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는다. 『이자수어』는 본래 『도동록(道東錄)』에서 출발하는데, 『도동록』은 성호가 젊은 시절 퇴계의 문집과 저작 그리고 언행록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채록해 둔 것이다. 성호는 만년에 『도동록』을 다시 꺼내어 문인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 1695-1773)와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에게 개정을 맡겼고, 실제 개정과 편찬의 실무는 안정복이 담당했다. 『도동록』의 '도동(道東)'은 조선에서 도통을 계승한다는 조선 사림의 일반적 인식에 따라 흔히 사용되던 말이다. 그런데 성호는 퇴계를 '이자(李子)'로 지칭하면서 도통의식을 나타내는 '도동'이라는 말을 버리고 책의 제목을 『이자수어』로 바꾼 것이다.

성호는 사칠론에서 리발기승일로설(理發氣隨一路說)을 주장하며, 퇴계의 호발설을 부정하고 공칠정론(公七情論)을 입론했다. 이러한 성호의 퇴계와 학문적 이질성 때문에 『사칠신편』은 당시부터 '사퇴취율(舍退就栗)'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¹ 예학연구에 있어서 성호는 퇴계 예학을 계승하면서도 『이선생예설유편』에서는 시의(時宜)에 적합한 형태로 변용시켰다. 『사칠신

1 『星湖全集』 권17, 「答李汝謙」庚申(1740). “或者汝謙疑瀾舍退就栗耶. 夫豈然哉.”

편』과 『이선생예설유편』은 이와 같이 퇴계의 학술에 대한 성호의 이론적 보완과 변형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자수어』는 일종의 언행록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퇴계의 언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두 편의 저작에 비해 『이자수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17세기 말 서인과의 정쟁에서 패배한 남인들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영남에 기반을 둔 영남사림들은 퇴계를 중심으로 결집한다면 서울 경기일대에 근거지를 둔 경기남인은 다양한 학통의 인물들이 흡수 통합되면서 영남남인들과는 조금 다른 학풍을 지니게 된다. 경기남인은 당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서인 율곡학과는 물론이고 영남 퇴계학과들의 시선에서는 '정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경기남인을 대표하는 인물인 성호는 50세 무렵부터 학문적 명망을 얻게 되면서, 퇴계학술을 연구하고 정리한 유편(類編)의 존재를 영남의 학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퇴계를 '이자(李子)'라고 지칭한 『이자수어』의 편찬은 성호 자신이 퇴계의 성리학적 문제의식을 계승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자수어』는 성호와 안정복, 윤동규의 공동 작업으로 편찬되는데, 세부적인 항목의 구성이나 편차 그리고 표제 등이 논의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자수어』의 편찬과정을 밝히고 있다.² 그런데 윤동규의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일부 서간들이 있다.³ 그 중에는 『이자수어』의 편찬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검토대상으로 삼지

2 『이자수어』의 편찬과정을 소개한 것으로는 이광호의 「『이자수어』 해제」(이광호 역, 『이자수어: 성호 이익이 가려 뽑은 퇴계학의 정수』(예문서원, 2010), 13-39쪽), 함영대의 「소남 윤동규의 학술과 성호학과: 저작과 교류를 중심으로」(『장서각』 37(2017), 73-79쪽)가 있다.

3 『소남 윤동규 서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이자수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⁴ 이 글에서는 윤동규의 서간을 보충하여 『이자수어』의 편찬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자수어』가 단순한 언행록의 성격을 넘어서는 퇴계학 입문서라는 평가⁵에 대한 학술적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Ⅱ. 『도동록(道東錄)』과 성호의 도통의식

『이자수어』는 성호가 30세 무렵 퇴계의 문집과 저술, 문인들이 쓴 언행록 등에서 가려 뽑아 주제별로 엮어 놓은 『도동록』⁶을 개정한 것이다.⁷ 현재

-
- 4 『이자수어』에 관한 연구로는 임종진, 「주자와 퇴계의 성리사상비교: 장백행의 『속근사록』과 성호 이익의 『이자수어』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41(2007): 정도원, 「성호 이익의 퇴계 읽기와 학파분열: 성호와 근기남인의 학문적 접점과 동도론의 괴리」, 『유교사상문화연구』 58(2014.): 김경하, 「퇴계 이황의 형이상학 연구: 『이자수어』 「도체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등이 있다. 그밖에는 『이자수어』가 성호의 퇴계학 연구 성과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에서 그쳤으며, 『이자수어』의 개정과정은 대체로 앞의 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5 『퇴계선생언행록』 해제에 따르면 『이자수어』는 기존의 언행록을 모두 흡수했으며, 다른 언행록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퇴계 문집 자료의 활용으로 선별의 폭을 넓혔고, 기존의 언행록의 산만하고 복잡한 체재를 벗어나 『근사록』의 분류방법을 따른 것 등이 특색으로 명실상부한 퇴계언행록의 집대성이자 퇴계학 입문서로 규모와 내용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김언중, 「『퇴계선생언행록』 해제」, 홍승균, 이윤희 공역, 『퇴계선생언행록』(퇴계학연구원, 1999), 3-25쪽 참조.
 - 6 이 글에서 저본으로 삼은 『도동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이다(奎7547-v.1-2). 상하 2책의 필사본으로 卷首에 自序, 引用書目, 答門人姓名이 있고 卷末에 “當姪九煥이 一通을 繕寫하여 家中에 간직하였는데, 先生의 序文에 비록 增刪하여 책을 완성하여 줄 것을 말씀한 것이 있으나 先生이 돌아간 후에 감히 增減할 수 없어서 原稿 그대로 從子 秉休가 庚寅(1770년) 八月十一日날에 謹書하다.”는 기록이 있다. 규장각해제에 따르면 이 책은 필체가 조잡하여 當姪九煥의 繕寫나 從子 秉休의 親筆이 아니라 後人の 筆寫本으로 추정한다.
 - 7 안정복에게 보낸 편지와 『이자수어』 서문에 의하면 성호가 「도동록」을 채록해

남아있는 『도동록』 서문에 따르면, 성호는 처음에는 책으로 만들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인적인 비망기의 형태로 퇴계의 글을 채록해 두었다. 평소에 열람을 목적으로 채록한 것이지만 문집, 저작을 비롯해서 문인들의 언행록까지 범위가 넓어지자 분류 편집하여 ‘도동록’으로 제목을 붙였고, 주자의 『근사록』을 염두에 두면서 언젠가는 제대로 된 책으로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었다.⁸

성호가 명명한 ‘도동(道東)’이라는 말은 후한 때 산동(山東)출신 정현(鄭玄)이 마융(馬融)의 문학에서 수학하고 고향인 산동으로 돌아갈 때 마융이 한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⁹ ‘도동’은 명청교체 이후 조선 학자들에게 도가 동쪽 즉 조선으로 전해졌다는 의미에서, 조선에서 중화문화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조선 중화의식을 표현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동 내지 도동의식에 부합하는 내용이 저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만부(李萬敷, 1664-1732)가 『성리대전』 체제를 모방하여 조선 선현의 학설을 정리한 『도동편』이 대표적이다.¹⁰

놓은 것은 대략 1710년경이다. 『星湖全集』 권24, 「答安百順」壬申(1752). “退集採錄, 卽少時事, 閣置四十年餘.”

- 8 『道東錄』 「序」. “是錄非始願也. 余近時觀退溪先生集, 其於喫緊可爲人訓處, 必點節而識之, 點節而又浩不能記, 則乃抄書爲常目計. 既而編簡甚煩, 又不而領會, 則分門類輯爲便於繙閱, 後得見先生所嘗撰著諸書及其門人記善等錄, 輒採而附焉. 又不以無名故命曰道東錄. 茲實偶爾成者, 余敢有志于編摩之責歟. 特以備余忘而已. 余敢妄于及人之功歟. 又將因是以尋究于本書, 余敢把作別錄, 如朱文公近思書之爲歟. 然且典籍未廣, 見識有限, 迄未就完秩, 倘有知余者, 紹而增刪成一美事, 則豈但余之幸也.”
- 9 『後漢書』 卷35, 「鄭玄列傳」. “融門徒四百余人, 升堂進者五十餘生. 融素驕貴, 玄在門下, 三年不得見, 乃使高業弟子傳授于玄. 玄日夜尋誦, 未嘗怠倦. 會融集諸生考論圖緯, 聞玄善筭, 乃召見于樓上, 玄因從質諸疑義, 問畢辭歸. 融喟然謂門人曰鄭生今去, 吾道東矣.”
- 10 이만부보다 앞서 陶齋 尹昕(1564-1638)이 편찬한 『道東編』이 있다. 浦清 趙翼(1579-1655)의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주자의 『名臣言行錄』의 체제를 본떠서 道學으로 이름난 우리나라 선현들의 언행과 사적을 수집하여 엮은 것이다(『浦清集』 권26,

이만부의 『도동편』은 1718년 완성된 것으로 조선초기부터 당대까지 조선 유현 48인의 성리설을 수록했다.¹¹ 『도동편』은 퇴계의 「천명도설」과 「성학십도」를 전면에 배치한 조선판 『성리대전』으로써 퇴계가 조선성리학의 대본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17-18세기 퇴계학과와 율곡학과의 학파적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극심한 대립양상을 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부의 『도동록』은 비록 퇴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까지 조선의 성리학을 집성한 것으로 학파나 당파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율곡과 성혼 등의 학설을 수록한 것 때문에 퇴계정맥으로 자처하는 영남학자들의 『도동편』에 대한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었다.¹²

성호는 이만부의 행장을 지으면서 『도동편』을 언급했다.¹³ 성호가 도통의식을 담고 있는 ‘도동’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은 것은, 이만부와의 오랜 관계를 고려할 때 기왕의 『도동편』과 제목이 유사하다는 점과 『도동편』에 대한 영남학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¹⁴ 그러나 도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성호의 도통관이 폐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성호는 주자의 도통론을 반복하는 측면이 있으며, 『성호사설』에서 도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道東編序」.

- 11 정재훈,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 『국학연구』 23(2013), 참조.
- 12 이재는 『성리대전』에서 소식(蘇軾)의 『역해(易解)]나 장무구(張無垢)의 『중용해(中庸解)], 육상산의 태극도설 논변 등을 수록하지 않은 예와 같이 율곡의 학설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다(『密菴集』 권5, 「答李仲舒」).
- 13 『星湖全集』 권66, 「息山李先生行狀」. “東方理學之緒, 至晦退諸先生始大. 嗣是羣賢輩出, 名論迭彰. 然文獻不備, 後來將無以考信, 故搜羅類彙, 作道東編九卷.”
- 14 성호가문과 이만부의 교유에 대해서는 김학수, 「성호 이익의 학문연원: 가학의 연원과 사우관계를 중심으로」, 『성호학보』 1(2005) 참조.

도통이란 말은 『논어』와 『맹자』의 마지막 편에서 시작되었다. 한유가 “아무 개맹재가 죽은 뒤로는 그 전함을 얻지 못했다.”고 했으니, 이 도통은 맹자가 이미 스스로 말한 것이다. 주자도 위로는 희황(羲皇)으로부터 아래로는 정부자(程夫子) 형제까지 미루고 자신을 그 뒤에 붙여 놓았다.¹⁵

도통론은 한유(韓愈)가 처음으로 제기한 유교정통주의 회복을 위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호는 한유를 넘어 공자와 맹자에 의해 이미 도통론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⁶ 『논어』의 마지막 편 「요왈」의 첫 장은 요·순·우가 도[允執其中]를 전하는 내용이다.¹⁷ 『맹자』 마지막 편 「진심하」의 끝 장에서 맹자는 요·순·우·탕·문·무로 도가 전승된 계보를 제시하고 공자 이후 성인의 도가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¹⁸ 성호는 『논어』와 『맹자』에서 제시된 도통론을 주자가 체계화한 것으로 보았다. 주자는 요·순·우의 앞에 복희까지 소급하고, 맹자 이후에 정씨형제로 이어지는 계보를 구축하고 자신을 붙여 놓음으로써 도통론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성호는 공자로부터 전수되는 도를 일관(一貫)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공자·증자·자사·맹자는 도통을 서로 전해 왔다. 공자가 증자에게 전한 것은 일관(一貫)에 지나지 않았으니, 자사가 맹자에게 전한 것 또한 이와 같은

15 『星湖僂說』 권10, 〈人事門〉, 「道統」. “道統之說, 肇自論語及孟子篇末, 韓愈謂某之死不得其傳, 此孟子已自道矣. 朱子又上推於羲皇, 下及於程夫子兄, 竊自附於其後焉.”

16 권문봉, 「성호 경학의 몇 가지 문제: 『맹자질서』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2008), 1160쪽 참조.

17 『論語』 「堯曰」의 ‘允執其中’은 『상서』 「대우모」에서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12자를 더해 성인의 16자심법의 요결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18 『孟子』 「盡心下」. “由堯舜至於湯, 五百有餘歲, 若禹臯陶, 則見而知之, 若湯, 則聞而知之. 由湯至於文王, 五百有餘歲, 若伊尹萊朱, 則見而知之, 若文王, 則聞而知之. 由文王至於孔子, 五百有餘歲, 若太公望散宜生, 則見而知之, 若孔子, 則聞而知之. 由孔子而來至於今, 百有餘歲, 去聖人之世若此其未遠也, 近聖人之居若此其甚也, 然而無有乎爾, 則亦無有乎爾.”

것에 불과하다. 공자는 일찍이 일(一)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자사에게서 미루어 찾아야 할 것이다.¹⁹

성호는 『중용』을 자사의 저작으로 보면서, 공자-증자-자사-맹자의 도통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전한 일관(一貫)의 내용이 『중용』에 있다고 한 것이다. 결국 『중용』의 성(誠)으로 귀결되는데, 성호에 따르면 『중용』에서 제시한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준칙(九經)은 인륜(君臣父子夫婦昆弟朋友)과 삼덕(知仁勇)이 하나[一] 즉 성(誠)으로 귀결되었으므로,²⁰ 『중용』에서 말한 성(誠)의 경지를 이루는 핵심은 인륜의 도리를 쉬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²¹ 인륜의 실천이 곧 공자가 전한 도통의 핵심이라는 것이 성호의 주장이다.

성호는 공자에서 주자를 거친 도통의 체계가 조선의 퇴계에 이르러 확립되었다고 보면서, 『이자수어』 서문에서 공자-주자-퇴계로 이어지는 도통계보를 제시한다. 이러한 도통계보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주자의 도통이 조선에서 퇴계로 이어진다는 것은 당파를 넘어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쉽게 반박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성호는 퇴계를 조선 학문의 태조(太祖)로 추승하고자 하는데,²² 퇴계는 공자의 도맥을 이은 도통의 전수

19 『星湖僂說』 권21, 〈經史門〉, 「一貫」. “孔曾思孟道統有傳也. 孔子之傳于曾子. 莫過乎一貫, 則子思之傳孟子, 亦不過如此. 孔子不曾言一之為何物, 宜於子思推尋也.”

20 『中庸疾書』 20장. “誠者, 實理也. 貫九經五道三德而爲一者也. 正文云, 行之者一也. 此一字, 與三五九字對勘, 則別有一物在, 即誠而已矣.”

21 『中庸疾書』 20장. “中庸之書, 亦莫大乎九經. 九經本於五道, 倫常是也. 五道本於三德, 知仁勇是也. 三德本於一誠, 如衆葉本於枝, 衆枝本於幹, 衆幹本於一根, 非一而貫之乎. 子思又言達道達德而結之曰, 行之者一也. 言九經而結之, 曰一也. 始不言一之為何物, 然受之者, 未必如曾子之荅唯, 則卒乃反覆詳言, 使人曉然知誠之無不該貫, 即憤排啓發之義也. 兩相參較, 孔傳曾受可以發論而無疑耳.”

22 『星湖全集』 권13, 「與權台仲」 癸亥(1743). “有人集老先生以下諸賢簡札, 糝爲帖, 求一轉語. 漢題其端, 云東土之學, 當以退陶爲太祖, 至於諸子, 如族姓之尊屬, 以次排列, 宛有昭穆

자이므로 조선 도맥의 시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퇴계를 배출한 영남에 대해서도 성호는 대단히 호의적이다. 당시 경향(京鄕)의 분기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성호는 영남에서는 서울과 달리 오류를 실천하며 예제를 구현하는 생활을 하는 등 유학의 본래적인 기풍이 남아있다고 보았다. 영남이 가지고 있는 기풍의 연원을 신라로부터 진한에서 진나라 주나라로 소급시키는²³ 다소 과격적인 주장을 한다. 성호의 영남지역에 대한 역사적 규정은 삼대의 이상적인 정치를 담은 주나라의 문물제도가 다시 공자로부터 주자를 거쳐 퇴계로 이어진다는 도통의 맥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통의 맥락에서 퇴계의 위상은 단연 독보적이다. 성호는 주자가 자신을 도통계보에 붙여 놓은 것처럼 퇴계로 이어지는 도통계보에 자신을 붙여놓고 '새로운 실학'을 구상했다. 그러므로 퇴계철학을 부정하고 주자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남의 퇴계학파를 향해서 성호가 자신의 학술적 기획은 맹자-주자-퇴계 노선의 유교 정통주의에 입각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성호는 이윤(伊尹)을 도통의 전수자로 거론하기도 한다.²⁴ 주자가 이윤을 도통계보에 넣었지만,²⁵ 성호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윤이 성인의 심법을 깨달은 것으로 보았다. 이윤을 성인에 반열에 올려둔 것은 맹자이다. 그러나 맹자는 이윤을 백이(伯夷)나 유하혜(柳下惠)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일면을 갖추었을 뿐이며, 공자와 비견되는 완전한 성인으로 평가하

意思.”

- 23 조성산, 「조선후기 성호학의 '지역성' 담론」, 『민족문화논총』 60(2013), 41-45쪽.
 24 『星湖僿說』 권23, 〈經史門〉, 「聖之任」. “伊尹曰, 我先覺者也. 非予覺之伊誰為. 所覺者何物, 覺之何. 方必是堯舜相傳之學, 其學亦不過曰危微精一執中之義也. […] 大禹之後, 寥寥無聞, 惟尹任之, 思天下匹夫匹婦, 有不得其所者, 若己推以納諸溝中, 即堯舜病博施之心也. 其耕於有莘之野, 嘒嘒然愴古之道, 古者堯舜也. 恐是傳五百年不傳之統者也.”
 25 「中庸章句序」. “自是以來, 聖聖相承, 若成湯文武之爲君, 臯陶伊傅周召之爲臣, 既皆以此而接夫道統之傳.”

지는 않았다.²⁶ 성호는 이윤의 역량이 공자의 시중(時中)과 같은 중도(中道)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데,²⁷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려는 자임의식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성호는 이윤의 자임의식이 외왕의 실천적 입장에서 '유학의 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해결 능력의 발휘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당시에 성학(聖學) 이외에 따로 일종의 이윤의 학이 있었으니 '다스러져도 나아가며 어지러워도 나아가' 허점을 미봉하며, 위로 사귀고 아래로 사귀되 제후들과 외교를 잘하며, 임금을 높이는 예를 잃은 적이 없었다.²⁸

여기서 이윤이 어떤 임금이라고 섬기며 어떤 백성이라도 다스리며 치란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²⁹을 일종의 '이윤의 학'이라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로는 임금과 아래로는 백성들과 소통하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예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윤이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타개해 나가는 능력(識務)을 발휘한 것이 이윤의 도에 대한 자임의식(聖之任)이라고 본 것이다.

이윤의 도에 대한 자임의식은 여영시(余英時)에 따르면, 선진시대의 사(士)는 어디까지나 도를 자기 임무로 삼기 때문에 실천 속에서 구체화되더라도 여전히 가치세계의 담당자이지만, 송대 사대부에 이르러서 비로소 국가

26 『孟子』 「公孫丑上」 2; 「萬章上」 1.

27 『星湖僊說』 권23, 〈經史門〉, 「聖之任」. “夷之清, 惠之和, 終在伊尹力量之內, 而若尹者幾於中道矣.”

28 『星湖僊說』 권26, 〈經史門〉, 「晏嬰具臣」. “當時聖學之外, 別有一種伊尹之學, 治亦進, 亂亦進, 彌縫罅漏, 上交下交, 善辭命於諸侯, 不失尊君之禮也.”

29 『孟子』 「公孫丑上」.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伊尹也.”

사회의 공무를 처리하는데 직접 참여할 자격을 갖는 정치담당자로서의 자임의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³⁰ 이렇게 송대 사대부들은 정치적 주체의 의식을 ‘天下爲己任’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며, 주자도 「중용장구서」에서 16자 심법을 인용하여 도통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성호는 이윤의 자임의식을 송대 사대부들의 정치적 주체의식으로 해석하여 조선의 도학 계보에 결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Ⅲ. 『이자수어』 편찬 과정

성호가 『도동록』을 다시 언급한 것은 권상일(權相一, 1679-1759)에게 1745년 보낸 편지에 처음 보인다.

에전에 제가 퇴계 선생의 유집(遺集)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글들을 모아 분야별로 편집하여 『도동록』 1책을 만들었고, 또 예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채록하고 각각 그 요지를 뽑아 주제별로 분류한 다음 관혼(冠婚)의 예법에서부터 향방(鄉邦)의 예법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편집하여 『이선생예설』 상하 두 책을 만들었습니다.³¹

이 편지에서 성호는 권상일에게 『도동록』과 『이선생예설』의 편찬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권두경(權斗經, 1654-1725)은 1723년 이재(李裁, 1657-1730)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호의 유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³²

30 余英時 저, 이원석 역, 『주희의 역사세계』(글항아리, 2015), 306-308쪽 참조.

31 『星湖全集』 권14, 「答權台仲」乙丑(1745). “漢就遺集中採可師可法者, 分門類彙, 爲道東錄一冊. 又採言禮者, 各取其要旨爲題目, 自冠昏至鄉邦之禮, 次第編入, 爲李先生禮說上下冊.”

32 『蒼雪齋集』 권8, 「答李幼材」癸卯(1723). “子新取老先生文集, 分類成編, 未知其書體段竟

한국정국에서 1720년 성호의 형 이잠(李潛)이 신원되면서 경기남인은 정계 진출의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데, 성호의 학문적 명망이 영남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성호는 퇴계문인록 편찬에 관여함으로써 영남퇴계학과와 관계가 보다 공고해진 이후, 권상일에게 『도동록』과 『이선생예설』을 소개한 것이다. 권상일은 1732년 『퇴계언행통록』 간행으로 영남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³³ 이 책의 편찬자가 권두경이다.

1741년 신유대훈 이후 탕평정국에서 남인은 정계의 일각을 차지하면서 노론에 대응하는 정권유지 명분이 요청되었다. 이 시기 성호는 허목의 신도비(神道碑) 찬술을 통해서 경기남인의 학문적 정통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표출하면서, 성호는 경기남인의 산림으로 위상을 갖게 된다. 성호는 비록 정치일선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사환(仕宦)의 희망을 평생 품고 있었으며,³⁴ 60대에 대표적인 남인계 인사들의 묘도문(墓道文)을 찬술했다. 성호의 묘도문 작성은 경기남인의 정권유지의 명분과 남인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산림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성호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아들 이맹휴(李孟休)가 대과에 급제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시기에 시작되었고, 1751년 이맹휴가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何如也.”

- 33 성호는 권상일을 통해 경기지역에서 퇴계문인록에 수록될만한 인물들을 추천하면서 퇴계문인록 편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실제로 성호의 견해가 상당부분 채택되어 퇴계문인이 경기지역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 김학수, 「성호 이익의 학문연원: 가학의 연원과 사우관계를 중심으로」, 『성호학보』 1(2005), 97-103쪽.
- 34 성호의 관직에 제수된 것은 이잠 신원 이후 남인이 조정에 진출한 시기 1727년의 繕工監 假監役(중9품)과 1763년 83세에 優老典으로 첨지중추부사에 불과하지만, 78세 때 성호는 마침내 관직에 나갈 희망을 완전히 버렸다고 토로하고 있다(『성호전집』 권28, 「答安斯文」 允赫○戊寅(1758). “到今視官全喪, 寄身於普騰世界, 聖學何論.”).
- 35 신채용, 「『성호전집』 묘도문자를 통해서 본 이익의 남인의리」, 『조선시대사학보』 80(2017), 223-229쪽 참조.

떠나면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만부가 보낸 편지에서 아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호에게 남인을 이끌 책임이 달려있음을 당부하고 있는데,³⁶ 『이자수어』 편찬에 착수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윤동규의 「발문」에 따르면 처음 성호가 『도동록』을 맡긴 것은 1750년이며, 윤동규의 추천으로 『도동록』의 개정 작업은 안정복이 주도하게 되었다. 성호가 『도동록』을 『이자수어』로 편찬하고자 한 시기에 『율곡전서』가 간행되었다. 1749년 이재(李穡, 1680-1746)의 문인 홍계유(洪啓禧, 1703-1771)가 44권 23책으로 간행한 『율곡전서』는 율곡학술의 연구와 정리에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이렇게 선현의 유고를 편찬하고 간행하는 작업은 일종의 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성호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퇴계학을 연구하고 정리한 결과물로 『이자수어』를 편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개정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안정복이 쓴 ‘이선생수어(李先生粹語)’라는 표제이다. 이 표제가 나중에 ‘이자수어(李子粹語)’라는 제목으로 확정된다. 안정복은 『도동록』의 표제를 새로 쓴 이유를 윤동규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동록』을 『수어』로 이름을 고친 것은 감히 어른께 고하지 않고 먼저 표제를 붙인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등사할 때 원 책에 겉표지가 없어 쉽게

36 『息山集』 권8, 「與李子新」. “然有一說焉, 擔荷先德, 興衰相關, 強厲吾黨, 望責至重, 其不在子新身上耶. 惟子新念之, 理寬義比, 毋徒以情傷天, 是區區之望也.”

37 성호가 『율곡전서』의 간행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없지만, 『율곡전서』 간행을 맡았던 홍계희와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있다. 성호의 詩 중에 화가 崔北이 1748년 초 홍계희가 정사가 되었던 통신사의 회원으로 일본에 가는 것을 전송한 내용을 볼 수 있을 뿐이다(『星湖全集』 권5, 「送崔七七之日本」). 『栗谷全書』 간행에 대해서는 신항수, 「홍계희의 편찬 및 간행활동과 도통의식」, 『역사와 담론』 66(2013) 참조.

해질 염려가 있어 못 쓰게 된 종지로 임시 표지를 만들고 책 앞면에 붓 가는대로 '이선생수어(李先生粹語)' 다섯 자를 쓴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원래 성품이 거칠어서 그대로 돌려드렸던 것입니다.³⁸

안정복은 『이선생예설』을 염두에 두고 '이선생수어'라고 쓴 것으로 보인다. 윤동규는 안정복이 스승의 책에 멋대로 표제를 고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나무라고,³⁹ 성호에게도 이 내용을 알렸다.⁴⁰ 그러나 성호는 오히려 안정복이 쓴 표제에 만족하는 뜻을 보이며, 오히려 '이선생'을 '이자'로 고칠 것을 제안했다.

'수어'라는 제목은 일찍이 二程의 글에서 본 적이 있으니, 이것으로 표제를 삼는다면 참으로 합당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우리나라 역사 이래 퇴도처럼 훌륭한 분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자'라고 칭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퇴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⁴¹

표제는 백순의 말한 대로 '수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명칭을 바로 이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인의 문하에 증자(曾子)라는 말이 있는데,⁴² 우리나라에는 자(子)로서는 이자(李子) 한 사람뿐입니다. 지극하

38 『順菴集』 권3, 「答邵南尹丈書」壬申1752. “道東錄, 改名粹語, 非敢不告長者而先爲此標題也. 當初謄寫時, 原冊無衣, 恐其浮弊, 以休紙爲假衣, 而信筆書以李先生粹語五字于冊面. 後來思之, 更覺未安, 而原來性情簡率, 因以封還.”

39 『邵南尹東奎書簡』, 「안정복수신서간 15(1752년 7월 10일)」(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2012). 이하 『소남서간』으로 약칭함.

40 『소남서간』, 「이익수신서간 8(1752년 7월 10일)」, 45쪽.

41 『星湖全集』 권24, 「答安百順」壬申(1752). “粹語之目, 曾於二程書中見之, 用此標題, 實所允愜. 愚謂自有東邦以來, 未有盛於退陶, 則直稱李子, 國人莫不知其爲退陶也. 此意何如.”

42 “성인의 문하에 증자(曾子)라는 말이 나오는데(聖門有言子曾子等書)”라는 구절은 심

게 존송하는 것이지만 의리에 해되는 것은 없을 듯합니다.⁴³

조선에서 자(子)를 붙인 경우는 송시열이 유일하다.⁴⁴ 그러므로 퇴계를 이선생이 아닌 ‘이자’로 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성호는 퇴계를 우리나라 학문의 태조라고도 했는데, 이제 ‘이자’로 퇴계를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호는 퇴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인의 학문을 전수받은 도통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 맹자, 주자 다음에 이자로 퇴계를 지칭하더라도 의리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니, ‘이자’로 퇴계를 지칭한 것이 바로 도통의식의 표명이다.

비록 당시에 송시열의 제자들이 조야에서 송시열을 ‘송자(宋子)’로 칭하고 있었지만, 안정복은 퇴계를 자(子)로 칭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낀 듯하다. 그래서 퇴계를 존송하는 성호의 뜻은 받아들이지만, 이자로 칭하는 것은

사자의 조언을 따라 해석을 수정했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공자의 제자 증자(曾點)의 『曾子』라는 책은 일부가 『大戴禮記』에 남아 전해지며, 言偃(子遊)도 言子로 지칭되었고 『言子』라는 책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언자』는 宋代에 이르러 王楙에 의해 편찬되었지만 실전되었고, 명대 侯先春이 편찬한 『言子文學錄』이 있지만 간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청대에 이르러 언언의 75세손인 言如泗가 光緒 23년(1897) 3권 1책으로 편찬한 『言子文學錄』이 현재 남아 있다(庄若江 외, 『吳文化內涵的現代解读』(中国文史出版社, 2014), 139-140項). 그러므로 ‘언자’와 ‘증자’를 각각 책 이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자』가 송대 이후에 등장하며, 공자 문하에서 子로 칭해지는 사람은 顏子和 曾子가 대표적이고 言子를 언급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렵다.

43 『星湖全集』 권20, 「答尹幼章」壬申(1752). “標題依百順粹語亦好矣, 又若直以李子爲名何如. 聖門有言子曾子等書, 我東方但有子李子一人, 極其尊崇, 恐無害義.”

44 송시열을 언제부터 송자로 지칭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787년(정조11년) 9월 평안 감영에서 『송자대전』이 간행되면서부터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집의 서명을 대전이라고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송자라는 호칭과 함께 대전으로 간행된 것은 당시 송시열 문인이 주축이 된 노론이 정치나 학계를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성록』 정조11년 10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송시열의 문집을 ‘송자대전’으로 했다는 것을 듣고 정조가 온당치 않지만 이미 간행해 버린 상황에서 바꾸기도 어렵다며 개탄하는 내용이 있다.

반대의 뜻을 보이며, '이선생'이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⁴⁵ 그러나 성호의 뜻에 따라 윤동규도 '이자수어'라는 표제를 수용하게 되고,⁴⁶ 이후의 편지에서는 대부분 『도동록』 대신 『이자수어』로 지칭하면서 표제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자수어』는 『근사록』의 체제에 따라 편집되었다.⁴⁷ 『이자수어』로 편집 되기 전 『도동록』의 본래 형태는 다음 안정복의 편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자수어』의 편차는 참으로 의심할 만한 것들이 있으므로, 주제넘고 경솔하게 개정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차(章次)도 전적으로 문집의 순서대로 편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뒤로 완급이 차례를 잃은 경우도 있어 역시 윤장과 상의하여 고쳤습니다. 이것은 감히 어른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책을 이리저리 쪼개는 것을 저의 공으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⁴⁸

여기서 말하는 『이자수어』는 『도동록』을 가리킨다. 현재 남아 있는 『도동록』은 각 항목의 표제어에 따라 대개 문집, 저작, 언행록 등의 순서로 채록되어 있다. 『도동록』의 편차는 언행록이 저작보다 앞에 있는 경우도

45 『順菴集』 권3, 「答邵南尹文書」壬申1752. “自有東方以來，學問之盛，無過於退溪，則李子之稱，實無可疑，而學天下而論之，周程張朱之稱子，皆無異辭，至若他儒賢，則其受業私淑之人，雖或稱子，而不能爲大同之辭。私竊以爲先生之稱，似爲渾然。”

46 『소남서간』, 「안정복수신서간 16(1752년 8월 2일)」.

47 『星湖全集』 권20, 「答尹幼章」壬申(1752). “百順謂道東錄當如近思錄規模.” 『도동록』 서문에 비록 “余敢把作別錄，如朱文公近思書之爲歟”라고 한 것이 있지만, 안정복의 제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도동록』 필사본은 『이자수어』를 편찬한 뒤에 가장본으로 다시 베껴둔 것으로 보인다. 『이자수어』 편찬과정에서 『도동록』의 서문에 대해서 언급된 일이 없고,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자수어』 편찬 이후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48 『順菴集』 권2, 「上星湖先生書」癸酉(1753). “粹語篇次，儘有可疑，故僭易改定仰稟。且其章次，專以文集之序編定，故前後緩急，或失其序，亦與尹丈商量改次，非敢分裂長者已成之書，欲爲己功也.”

있지만 대체로 퇴계문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앞쪽에 배치하면서, 문집의 권수에 따라 차례로 배열했다.⁴⁹ 그러므로 『도동록』이 별다른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동록』이 이렇게 일정한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므로 안정복은 『근사록』의 예에 따르고자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도동록』의 편차구성이나 조목의 배치에서 특별한 의미를 추출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⁰ 다만 『도동록』이 『근사록』의 체제에 따라 『이자수어』로 개정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안정복도 성호가 이미 만들어놓은 『도동록』을 심하게 쪼개 놓았다고 한 것이다.

다음 표에서 『이자수어』가 『근사록』의 체제에 따라 『도동록』의 편차를 어떻게 개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도동록	이자수어	근사록
상권	1 天道 17조	1 道體 (71조)	1 道體 (51조)
	2 心性 44조		
	3 讀書 60조	2 爲學 (39조)	2 爲學 (111조)
	4 窮格 39조	3 窮格 (91조)	3 致知 (78조)
	5 涵養 46조	4 涵養 (50조)	4 存養 (70조)
	6 力行 55조	5 力行 (49조)	5 克己 (41조)
	7 警戒 59조	6 居家 (86조)	6 家道 (22조)
		7 出處 (34조)	7 出處 (39조)

49 예를 들어 '천도편'은 총 17조목으로 권12의 「答白士偉」와 권24의 「答鄭子中別紙」 두 편이 차례로 앞쪽에 있다. 다음으로 수록된 것은 리기에 대한 내용을 권16의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二書」부터 권39의 「答李公浩」까지 11편을 문집 권수 차례에 따라 발췌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학봉집』의 「퇴계언행록」 3편과 『심경질의』에서 1편을 수록했다. '심성편' 43조목도 심성에 관련된 내용을 서간에서 36조목을 문집 권수 차례대로 싣고, 권7의 「進聖學十圖節」와 「연보」 그리고 『사서석의』에서 발췌했다. 이어서 『간재집』의 언행록에서 2편과 『심경질의』, 그리고 퇴계 문집 중 권36의 「答李宏仲問目」과 권42의 「靜齋記」에서 발췌했다.

50 정도원(2014), 앞의 논문, 394-399쪽 참조.

하권	8 居家 52조	8 治道 (27조)	8 治體 (25조)
			9 治法 (27조)
	9 接物 23조	9 政事 (23조)	10 政事 (64조)
	10 處變 9조	10 教導 (24조)	11 教學 (21조)
	11 教導 18조	11 警戒 (61조)	12 警戒 (33조)
	12 人物 71조	12 異端 (17조)	13 辨異端 (14조)
	13 異端 9조	13 聖賢 (69조)	14 觀聖賢 (26조)
	14 事君 11조		
	15 出處 18조		
	16 政事 11조		

위 표를 보면 『도동록』은 상하 2책으로 상권에 7편, 하권에 9편의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자수어』는 13편 647조목, 『근사록』은 14권 622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자수어』의 편목 중 「치도」는 『근사록』의 「치체」와 「치법」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그래서 『이자수어』의 편목수가 1편 줄었지만 조목 수는 『근사록』보다 많다. 『이자수어』가 퇴계의 말씀과 행적만으로 편성된 것을 고려할 때,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퇴계의 삶과 학문을 망라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복은 『근사록』의 편차를 따르면서 『도동록』의 「천도」와 「심성」편을 「도체」편에 포함시켰는데, 「도체」편에 적합하지 않은 「천도」편의 첫머리 2조목을 삭제했다. 윤동규의 편지에 따르면 2조목을 삭제한 것은 본래 성호의 뜻이다.⁵¹ 윤동규는 「천도」편 이외에도 편차에 대해서 몇 가지 산삭하고 보완할 곳을 제시했다.

무릇 이 책은 편찬하는 사이에 다시 본집을 상고하여 혹은 산삭하고 보탬

51 『소남서간』, 「안정복수신서간 19(1753년 여름)」. “其天道篇首錄二條, 適與鄙意合, 前日曾有論列, 而既是病患中未得承詢耳. 大抵此書, 編錄之間, 更考本集, 或似有刪增. 至於編目次第, 政事·事君·出處等目, 似當在品藻·異端之上, 附錄亦嘗并入品藻之中, 而品藻二字, 亦似未安.”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목과 순서의 경우에도 「정사」, 「사군」, 「출처」 등은 마땅히 「품조(品藻)」와 「이단」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록은 또한 일찍이 아울러 「품조」 안에 들어갔는데, '품조' 2자는 또한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일에 또한 일찍이 질문했으나 모두 하답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⁵²

윤동규는 『도동록』의 마지막 세 편 「정사」, 「사군」, 「출처」를 「품조」와 「이단」의 앞에 배치해야 『근사록』의 편목 순서에 합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품조」편은 『도동록』이나 『이자수어』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 성호도 「품조」 한 편은 취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⁵³ 「품조」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소남은 『도동록』의 「접물」편은 「거가」편에 포함될 내용이므로 하나로 묶어야 하지만 그대로 두는 것도 생각해볼 것도 제안했다. 윤동규는 안정복이 개정한 것은 대체로 수긍하지만, 「궁격」편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을 설명하는 경우와 같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수어』는 대체가 이미 바르니 세세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사문을 기다려 다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감히 평론하겠습니까. [...] 궁격(窮格)의 조목 중 ①'무형이대형(無形而大形)' 한 조목을 살펴보면 그 아래 소주에 이미 자세하게 다 설명하였으니 반드시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만약 자세하게 하고 싶다면 ②고봉에게 답한 편지를 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대개 이른바 ③'무지이태지(無之而太之)' 라고 하여 형체로

52 『소남서간』, 「안정복수신서간 19(1753년 여름)」. “大抵此書，編錄之間，更考本集，或似有刪增。至於編目次第，政事·事君·出處等目，似當在品藻·異端之上，附錄亦嘗并入品藻之中，而品藻二字，亦似未安。前日亦嘗稟疑，而皆未奉下答者，故因及之耳。”

53 『星湖全集』 권20, 「答尹幼章」甲戌(1754). “其品藻一編，亦緣依此爲取捨之計.”

의미를 삼는 것은 선생의 본의와 부합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⁵⁴

①은 주자가 「태극도설해」에서 무극이태극을 설명한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무형이대형’은 『이자수어』에 인용된 퇴계의 무극태극의 풀이에 따른 것이다. ②는 경오년(1750) 기대승에게 답하는 편지를 말하고, ③은 이덕홍의 「기선록」에 기록된 것이다. 성호는 『도동록』의 「궁격」편에서 ‘무극이태극’을 풀이한 경오년 편지를 수록하고, 여기에 대한 주해로 ①의 「기선록」을 붙여두었다. 퇴계는 경오년 편지에서 무극이태극에 대한 이전의 풀이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⁵⁵ 윤동규는 『기선록』에서 ③으로 풀이한 것은 퇴계의 본의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경오년 편지만 수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 논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선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생이 처음에는 무극태극을 ④‘없는 극이고(無之之極) 큰 극(太之之極)’으로 풀이했는데, 기명언이 이것을 의심스럽다고 했다. [...] 지금 이러한 것들로 보면 마땅히 ⑤‘극은 비록 없지만 큰 극(極雖無之而太之之極)’이라고 풀이해야 한다.⁵⁶

이덕홍은 퇴계가 처음에 무극이태극을 ④‘없는 극이고(無之之極), 큰 극(太

54 『소남서간』, 「안정복수신서간 25」(1753년 11월 21일). “粹語, 大體既正, 細小未合者, 當俟師門更[](正有), 何敢置議耶?……考窮格條無形而大形一條, 其下小註, 已爲詳悉, 不必更[](錄). 此語若欲其詳, 不如載答高峯一書耳. 蓋所謂無之而太之形爲義, 與先生本意, 似不合故耳, 未知如何?”

55 『退溪集』 권18, 「答奇明彦」 경오년(1570) 10월 15일.

56 『艮齋集』 권5, 「溪山記善錄上」. “先生初釋无極而太極曰, 無之之極, 太之之極. 奇明彦曰, 此可疑. [...] 今以此等語觀之, 當釋曰, 極雖無之而太之之極也.”

之之極)으로 풀이했지만, 기대승이 의문을 제기하자 주자의 「태극도설해」 등을 다시 검토하여 ⑤‘극은 비록 없지만 큰 극(極雖無之而太之之極)’으로 다시 풀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자수어』에 인용된 이 구절은 조금 다르다.

선생이 처음에는 무극이태극을 ④-A'없는 극이 큰 극이라(無爲隱極伊, 太爲隱極伊羅)라고 풀이했는데, 경오년(1570) 고봉이 이러한 해석은 의심스럽다고 하며 편지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 지금 이러한 것들로 보면 ⑤-A'극이 없되 큰 극이라(極伊無乎代, 太爲隱極伊羅)라고 풀이해야 한다.⁵⁷

『이자수어』에서는 「기선록」에 현토를 붙여놓은 것이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현토를 붙인 것은 『도동록』에서도 확인되므로 애초에 성호가 「기선록」에서 채록할 때 이 구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현토를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동규는 「기선록」에서 ‘무극이태극’을 풀이한 내용으로 경오년(1570) 기대승에게 답하는 편지의 주해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삭제하라고 한 것이다. 윤동규는 ‘무극이태극’의 의미를 문제 삼은 것이지만, 안정복은 수용하지 않았다. 안정복은 『도동록』과 동일하게 기대승에게 답하는 경오년 편지를 수록하고 그 주해로 「기선록」의 현토를 붙인 그대로 실었을 뿐, 무극태극의 논의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정복과 윤동규의 편집상의 고민은 범례로 정리되었다.⁵⁸ 범례에서 먼저 『도동록』을 『이자수어』로 개명했다 것과 『근사록』의 편목을 모방했음을

57 『李子粹語』 「窮格」(예문서원, 2010). “記善錄曰, 先生初釋無極而太極曰, 無爲隱極伊, 太爲隱極伊羅. 庚午高峯稟此可疑. [...] 今以此等觀之, 當釋曰, 極伊無乎代, 太爲隱極伊羅.”

58 『李子粹語』 「李子粹語凡例」.

명시하고, 이 책에서는 퇴계의 학술과 행적을 포괄하고자 운동규가 제시한 대로 「거가」와 「접물」은 하나로 묶고 「정사」와 「처변」도 하나로 묶어 퇴계의 언과 행이 고루 드러나도록 했으며, 퇴계가 정치에 대한 논의가 적기 때문에 「치체」와 「치법」을 「치도」 하나로 묶었다. 이와 같이 조목을 결정하거나 구절을 발췌하는 데는 운동규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지만, 안정복은 이 책의 모든 조목의 절산은 성호가 정한 것이며 조목마다 성호가 직접 주해를 붙였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안정복은 이 책이 성호의 의도에 따라 편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복이 별도로 첨가한 주해는 성호에게 질의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원서와 혼동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범례까지 정해지자 운동규는 1753년 겨울에 이병휴에게 『이자수어』 교정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⁵⁹ 이병휴는 『이자수어』 개정 작업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정이 끝난 후 안정복은 성호에게 서문을 운동규에게 발문을 부탁했다. 성호가 이 책을 편찬하면서 영남학자들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문을 초하면서 영남에서도 이 책을 간행하고자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했다.⁶⁰ 운동규는 발문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면서 논의가 끝난 것으로 보였던 표제를 다시 문제 삼는다.

이 책의 제목을 '도동'으로 하면 언과 행을 진실로 마땅히 함께 수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어'라고 칭하게 되면 정문(程門)에서 편찬한 것은 단지 이정의 말을 취한 것이니 이것은 『공자가어』와는 다릅니다. 『논어』는

59 『소남서간』, 「이병휴수신서간 8」. “近以道東錄脩整, 百順已受幾訖功, 而改名以李子粹語. 今方在百順, 亦望一番看詳可否耳.”

60 『星湖全集』 권24, 「答安百順」癸酉(1753). “小序科撒強草, 荒陋可愧. 嶺土入梓之說甚好意, 但恐無人辦得此也.”

각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자수어’라고 하면 중점이 이자에게 귀결되니 문인이 행의(行義)를 찬양한 말을 함께 취하면 아마도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인들이 찬미하기만 것은 아마도 모두 마땅히 산삭해야 할 것입니다. […] 편명을 『수어』로 하는 것은 끝내 온당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예설에도 ‘유편(類編)’이라고 이름 붙였으니 『수어』의 아래에도 다시 이 ‘유편’이라는 두 글자를 더하고, 『예설유편』도 다시 고쳐, ‘이자’라고 하면 진실로 후인의 범칭이 될 것이고 언과 행이 나란히 기록되어 서로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박문약례의 가르침에 거의 가까울 것이니, 먼저 ‘박이약(博而約)’하고 ‘택이정(擇而精)’한 것으로 진실로 아름답게 병행될 것입니다. 이런 뜻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⁶¹

윤동규는 이미 성호가 논의를 끝낸 『이자수어』라는 제목이 여전히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바꿀 수 없다면, 행(行)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어록의 의미에 부합하며, 퇴계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이자’라고 한다면 문인과 관련된 내용이나 퇴계에 대한 찬사도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자수어』가 『이선생예설유편』과 짝을 이루도록 『이자수어』는 『이자수어유편』으로 『이선생예설유편』은 『이자에설유편』으로 고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유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언과 행을 모두 수록했다는 의미가 되고, 두 책에 모두 ‘이자’라는 표현을 넣으면 후세 사람들의 범칭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동규는 이 책을 퇴계의 어록으로

61 『소남서간』, 「이익수신서간 11(1753년 12월 10일)」(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2012). “退翁善學朱子也, 若欲學朱子, 先學退翁云爾等語, 或可攬入乎, 然豈敢望有所贊辭其間耶, 茲有懷不敢不盡誠耳. 篇題若以道東, 則言行固當并收無妨, 而粹語之稱, 程門所編, 只取二程之言, 此異於家語, 論語之各有其義, 今日李子粹語, 則歸重在於李子, 而并取門人贊揚行義之語, 似不無憾. […] 門人徒贊美者, 疑皆當刪, 故逐條劄疑, 以付百順, 去取之間, 似有詳達. […] 篇名粹語終思未爲安處之, 曾看禮說亦以類編名之, 粹語之下, 更加此二字, 禮說類編更改, 以李子則固爲後人之汎稱, 而言行并載, 似不相妨, 且庶幾於博文約禮之教, 先爲博而約, 擇而精, 固竝行爲美, 未知此意如何.”

만들어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안정복은 반대한다.

‘수어’라고 명명한 뜻은 전일에 역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 『논어』도 어(語)이지만 그 내용에는 행(行)이 있고, 『국어』도 어(語)이지만 그 속에는 사(事)가 기재되어 있으며, 『가어』와 『어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노선생의 언행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말을 모아서 그 중 정수만을 뽑은 것이니, 정자의 『수언』과는 뜻이 좀 다릅니다. 장석께서 명명하신 것이 이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회답 주셨으면 합니다.⁶²

안정복은 『논어』, 『국어』, 『공자가어』, 『어류』 등과 같은 경우에서 ‘어(語)’라고 한 것은 사(事)와 행(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정수언』의 ‘언(言)’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⁶³ 애초에 성호가 『도동록』을 만든 것이 문집이나 저술뿐만 아니라 언행록에서도 채록한 것이므로 언과 행 그리고 사까지 포괄하려면 ‘언’이 아니라 ‘어’가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안정복은 윤동규의 의견에 반대하고, 본래 성호에게 이 책의 취지가 단지 어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했다.

윤장이 보낸 편지에 “이미 이름을 ‘수어’라고 했으면 언행을 함께 채록해서

62 『順菴集』 권3, 「答邵南尹丈書 癸酉(1753). “粹語命名之意, 前日亦嘗念及此矣. 旋思之, 論語語而行在其中, 國語語而事在其間, 至於家語語類, 莫不皆然. 此書合諸家所記老先生言行之語, 而節其粹者則與程子粹言之義, 微有不同. 丈席之命名, 蓋出於此, 更賜回教.”

63 語와 言은 실제로 구분되는데 주자는 答述을 ‘語’라 하고 自言을 ‘言’이라고 했다(『논어집주』 향당, “食不語, 寢不言” 주) 答述曰語. 自言曰言.). 주자의 구분은 정현이 “發端曰言, 答述曰語.”(『周禮注疏』 권22)라고 한 것에 연원이 있다. 『실문해자』에는 “直言曰言, 論難曰語”로 구분했다.

는 안 될 것이니, 편 중에 행에 관한 곳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시생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 책은 퇴계의 문집과 여러 사람의 언행록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고른 것이므로 정문의 『수언』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범례에서도 이미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서로 질정하지 못한 채 여러 번 윤장과 논란했지만 윤장은 수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제 생각으로는 끝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 다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⁶⁴

안정복은 범례에서도 이 책의 성격을 밝혔기 때문에 ‘이자수어’라는 이름은 이미 논의가 끝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윤동규가 다시 거론하므로 『이자수어』는 『이정수언』과 같은 어록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밝히며 성호에게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청한 것이다. 성호는 안정복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자수어’라는 제목은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탄한 말도 어찌 꼭 산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논어』는 聖人을 위해 지은 책이지만 또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며, 『근사록』에 있는 형화숙(邢和叔)의 한 조목에 이정(二程)과 관계가 없는 말이 있는 것은 오직 극진한 말만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다시 유장과 잘 의논해 보십시오.⁶⁵

64 『順菴集』 권2, 「上星湖先生書, 癸酉(1753). “尹丈有書以爲既以粹語命名, 則言行不當兼採, 篇中論行處, 皆當刪去. 此事侍生亦, 嘗念及, 而第意下, 以爲此書就文集及諸家言行錄中, 取其粹美之語, 與程門粹言, 微有不同, 而凡例中, 亦已言之矣. 由是不以爲疑, 未及質實, 累次論難于尹丈, 而未見肯可. 然愚意則終未知爲不可也. 伏未知如何, 更賜指教.”

65 『星湖全集』 권24, 「答安百順, 甲戌(1754). “粹語之目, 恐不必改. 其贊歎之辭, 亦何必刪. 論語爲聖人作而亦有此例, 近思錄邢和叔一條, 有不繫於二程者, 惟取至到之語而已, 此意更與幼章反覆也. 序文將投隙寫寄. 只患手掉字不成耳.”

성호는 “남겨두어야 하고 버려서는 안 될 것은 남기고, 남겨도 되고 버려도 되는 것은 버리는 게 옳다.(惟留可去不可者留之, 留可去亦可者去之宜)”⁶⁶ 라고 하는 일종의 편집 원칙을 제시했고, 윤동규와 안정복에게 개정과정에서 번다한 내용은 산삭하고 간략하게 핵심만 남길 것을 당부했다. 퇴계는 비록 자신에 대해 후학들이 지나치게 칭송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묘비명을 지었지만, 성호는 윤동규가 삭제를 건의한 행(行)에 관련된 것이나 문인의 찬사 등은 오히려 남겨야 한다고 보았다.⁶⁷ 이러한 것은 퇴계가 『주자서절요』를 만들면서 학술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일상적인 내용에서도 도학자의 기상과 풍모를 절실하게 체험하는 것이 중시한 취지와 상통한다.⁶⁸ 성호는 안정복이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목은 물론이고 편목이나 조목을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성호의 1754년 편지로 『이자수어』의 편집이 마침내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⁹

66 『星湖全集』 권20, 「答尹幼章」癸酉(1753). “凡纂集惟宜簡要, 元本亦多贅衍, 而新增者未必皆允愜, 須相與反覆而去取之, 惟留可去不可者留之, 留可去亦可者去之宜矣.”

67 『星湖全集』 권20, 「答尹幼章」甲戌(1754). “粹語之目, 仍舊何妨, 門人論述附著尤協. 茲與百順書, 略布其始彙之意. 不過在該識老先生言議, 故不憚繁複. 其品藻一編, 亦緣依此爲取捨之計, 一任良友之梳洗, 惟以速成完帙爲幸焉耳.”

68 『退溪集』 권10, 「答李仲久」. “夫義理固有精深處, 其獨無粗淺處乎. 事爲固有緊酬酢, 其無有閒酬酢乎. [...] 似不切之語, 間取而兼存之, 使玩而味之者, 如親見先生於燕閒優逸之際, 親聆音旨於營效談笑之餘, 則其得有道者氣象於風範神采之間者, 未必不更深於專務精深, 不屑不緊者之德孤而無得也.”

69 『星湖全集』 권24, 「答安百順」甲戌(1754). “粹語賴君得成完編”

IV. 『이지수어』 편찬 의의

『이지수어』의 개정과 편집이 끝났지만, 성호는 다시 검토하여 수정할 곳을 지적했으며 서문도 수정했다.⁷⁰ 서문에서 퇴계가 유교의 정맥을 계승했다는 도통관을 보여준다.

주나라가 쇠퇴했지만 주나라의 전례(典禮)는 노나라에 남았다. 성인이 노나라로 돌아와서 이것을 조술하니 도통의 실마리가 전해지게 되었다. 1500여 년을 지나 자양(紫陽) 주자 선생이 태어나 선왕의 도를 크게 밝혔다. 온 천하가 모두 높이고 친애하게 여기니 주나라의 예가 다시 행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은나라 태사(箕子)가 기업을 처음 세운 곳으로 그 유풍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 흰색을 숭상하고 강계(疆界)를 구획한 것에서 충분히 징험할 수 있어서 『곤전』에 등장하는 일부분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어진 풍속은 은나라 유민의 것이 아님이 없다. 2천여 년을 지나 퇴계 자이자(李子子)가 태어나 육경을 따르고 자양을 의지처로 삼았다. 참으로 은나라의 바탕(質)에 주나라의 문식(文)을 갖추었으니 조화롭게 대성한 것이다.⁷¹

유학의 도통이 공자로부터 주자를 거쳐 퇴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은나라의 기자가 기업을 세운 터전으로, 퇴계는 은나라의 소박한 문화를 바탕으로 주나라의 문명을 대성한 인물로 평가한다. 퇴계가

70 『星湖全集』 권25, 「答安百順」乙亥(1755). “粹語之序, 今復省閱, 意多未妥, 更加刪改.” 현재 서문은 안정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것이다.

71 『星湖全集』 권50, 「李子粹語序」. “周衰典禮在魯, 聖人歸而述之, 統緒有傳. 歷千五百有餘年, 而紫陽子朱子生, 大明先王之道, 薄海內外, 莫不尊親, 是周禮之復行也. 東方乃殷太師肇基之邦, 遺風未泯, 尙白晝疆, 往往足徵, 不比坤乾之一端, 則一區仁賢之俗, 莫非殷之遺民也. 歷二千有餘年, 而退溪子李子生, 步趨六經, 以紫陽爲依歸, 實因殷之質用周之文, 彬彬大成也.”

은나라의 소박한 문화의 바탕에 주나라의 찬란한 문명을 조화롭게 대성했다는 것은 공자가 집대성⁷²한 삼대의 이상적인 질서를 조선에서 퇴계가 회복했다는 의미가 된다. 성호가 퇴계를 이자로 지칭하는 것은 거의 공자에 비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퇴계가 우리나라에서 공자와 같이 유교의 도맥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성호의 도통의식이 동국사관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은나라 유민이 세운 나라에서 태어난 퇴계가 공자의 육경을 따르고 주자를 의지처로 삼았다는 것에서 성호가 육경을 근본에 두고 주자의 주석은 경전이해를 위한 문호로 이해하는 경학관을 엿볼 수 있다.

윤동규는 성호가 서문을 작성한 이듬해 발문을 쓰는데, 퇴계를 퇴옹(退翁)이라고 할 뿐 ‘이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퇴옹은 주자를 잘 배웠다. 주자를 배우고 싶으면 먼저 퇴옹을 배워야 한다. 퇴옹을 배우고 싶으면 유훈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이유이다. 성호 이선생이 이 책을 편찬한 것은 퇴옹이 『주자서절요』를 편찬한 것과 같다. [...] 독자가 만약 선생인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구한다면 아름답게 드날리는 화락한 기상을 아침저녁으로 갓끈을 씻던 시냇가에서 뱉는 듯하여 점차 무이구곡의 연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⁷³

윤동규는 퇴계가 주자를 배우고자 한 뜻에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72 『孟子』 「萬章下」,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鑿而玉振之也.”

73 『邵南遺稿』 권5, 「李子粹語跋」, “退翁善學朱子也, 欲學朱子當先學退翁, 欲學退翁不求之遺訓何以哉. 此是編之所由述也. 星湖李先生之有是編, 亦有退翁之編朱子書節要而然. [...] 讀者果能依其訓而求之, 則其於揚休雍容之氣象, 若將朝暮於濯纓之上, 而漸可溯於武夷九曲之源矣.”

편찬한 것처럼, 성호가 『이자수어』를 편찬한 뜻이 퇴계를 배우려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 윤동규가 퇴계의 가르침인 『이자수어』에 의지해서 무이구곡(武夷九曲)의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한 것은 결국 퇴계를 통해 주자를 학습하는 것을 이 책의 취지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윤동규는 이 책이 다만 퇴계의 『주자서절요』와 같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퇴계를 주자와 나란히 이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내 동의하기 어려운 뜻을 내비치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복은 이 책을 편찬한 성호의 취지와 편찬경위를 자세하게 서문에서 밝혔다. 안정복은 성호가 본래 서문을 수정하면서 안정복이 제시한 견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안정복의 서문에서 볼 수 있다. 안정복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①朱子가 세상을 떠난 지 302년 만에 퇴계 이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유학의 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주자의 학문을 강구하여 밝혔다. 평소에 저술이 풍부하고 문하 제자들의 기록이 많으니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 ②자(子)라는 호칭은 후인들의 우러르고 사모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러르고 사모하는 사람 중에서 퇴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없으니, 이자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 ③아. 공자가 돌아가시자 미언이 끊어지고 70제자가 흩어지자 대의가 어긋나게 되었으니, 어찌 옛날만 그러하겠는가. 퇴계선생이 돌아가신 지 이제 184년이다. 선생의 글은 남아 있지만 선생을 계승하여 흥기한 사람이 없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내가 일찍이 듣건대, “공자 맹자의 말씀은 왕조의 법령 같고, 정자, 주자의 말씀은 엄한 스승의 꾸지람 같고, 퇴계의 말씀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훈계와 같다.”라고 한다. 성현의 가르침은 어느 것이라도 배우는 자에게 藥石이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④이자는 살던 땅이 같고 시대가 가까워서 그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진실로 이 책을 읽고 가슴에 새겨 실천하면 자애로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이자가 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며, 후인들이 이자를 존경하며 스승으로 섬기는 참된 일일 것이다. 그런 뒤에야 우리 성호선생께서 이름 붙이신 뜻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편찬한 노력도 헛된 없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⁷⁴

안정복이 성호와 같은 도동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위 인용문 ①과 ③에서 볼 수 있다. ②에서는 퇴계를 이자로 지칭하면서 퇴계가 주자이후 유학의 적전임을 강조하는데, 이 내용은 본래 안정복이 성호의 서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던 내용이다. 안정복은 퇴계를 이자로 칭하는 것을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성호가 서문에서 다시 퇴계를 이자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주시기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호가 서문에 넣지 않자 안정복이 이 구절을 자신의 서문에서 쓴 것이다. ③에서 ‘퇴계를 계승한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퇴계를 계승하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성호가 퇴계의 뒤를 이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호의 서문에서 ‘퇴계의 말을 말하고 퇴계의 행실을 행한다(言退溪言行退溪行)’라고 했는데 안정복은 ④에서 ‘자애로운 아버지 훈계처럼 퇴계의 말씀을 읽고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퇴계를 계승하여 유학의 도를 전수받는 방법이며, 이 때문에

74 『順菴集』 권18, 「李子粹語序」 癸酉. “朱子歿三百有二載, 而退溪李子起於東方, 以斯道爲己任, 講明朱子之學. [...] 稱子者, 是後人尊慕之辭也. 東人之尊慕, 莫過於退溪, 則李子之稱, 宜東人之無異辭也. [...] 噫, 仲尼歿而微言絕, 七十子散而大義乖, 奚獨古時然也. 先生之歿, 今百八十四年矣, 其書雖存, 而無有能繼先生而興者, 可勝歎哉. 不佞嘗聞之曰, 孔孟之言, 如王之法令, 程朱之言, 如嚴師之勸勵, 退溪之言, 如慈父之訓戒. 夫聖賢之教, 孰非學者之藥石, 而矧李子則其地同, 其世近, 其興感爲尤切矣. 誠讀是書而服膺體行, 如受慈父之教, 則是李子所望於後人, 而後人尊事李子之實事也. 夫然後庶無負我先生命名之義, 而吾僑編摩之役, 不徒爲汗漫事矣.”

성호가 『이지수어』를 편찬한 취지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복의 입장에서 이 책은 공자의 『논어』에 비견되는 퇴계의 『논어』로써 조선 성리학 학습서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⁷⁵

V. 맺음말

『이지수어』의 편찬과정에서 성호는 윤동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퇴계를 ‘이자’로 지칭할 것을 시종일관 주장했는데, 성호 자신은 퇴계의 뒤를 이어 도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다행히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찌 퇴계의 말을 말하고 퇴계의 행실을 행하고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퇴계는 사문의 맥을 부지했도다. 나는 뒤에 태어나서 퇴계의 제자가 될 수 없었고 다만 그 글을 읽고 기뻐할 뿐이었다.⁷⁶

‘퇴계의 말을 말하고 퇴계의 행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지수어』를 만든 성호의 뜻이다. 퇴계의 학술을 총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퇴계의 말을 말하고 퇴계의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이지수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성호의 학문적 지향을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는 이봉규는 성호가 현실에 대처하는 치용(致用)은 식무(識務)와 덕행

75 안정복은 실제로 이 책을 문하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읽혔으며, 이후 안정복 문인들에게 필독서로 전수되었다.

76 『星湖全集』 권50, 「李子粹語序」. “今幸而生此域中者, 豈不欲言退溪言行退溪行, 有以扶持一脈斯文哉. 漢生也後, 不得爲其徒, 徒能讀其書而悅之.”

(德行) 두 측면에서 유교적 질서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덕행의 측면에서 유교적 실천 모델을 퇴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퇴계의 사칠론을 비롯한 성리학의 이론적 문제를 정당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덕행의 실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모은 『이자수어』를 편찬한 것으로 보았다.⁷⁷ 성호가 『이자수어』를 통해 ‘퇴계의 말을 말하고, 행실을 행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덕행의 실천적 지침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자수어』는 퇴계의 언과 행을 기록하여 공자의 『논어』에 비견되는 조선 성리학 교과서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안정복의 손에 의해 재탄생된 것이지만, 안정복은 어디까지나 성호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편집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편찬과정에서 윤동규에 의해 제기된 내용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 가능하면 성호가 처음 작성해 둔 『도동록』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안정복이 『이자수어』의 편찬을 맡기 전에는 퇴계의 학술에 대한 깊은 이해에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그의 학문적 관심은 소학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의 실천적 규범을 익히는 하학에 있었다. 『하학지남(下學指南)』에서도 안정복은 퇴계를 비롯한 선현들의 언행을 실천적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지만,⁷⁸ 사칠론과 같은 성리이론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었다.

경기남인은 퇴계로부터 성호를 거쳐 다산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주장한다. 이러한 학통의식은 성호가 퇴계를 주자의 적전(嫡傳)이라고 하는 도통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남인의 도통의식은 다산에 이르러 약화되지만 성호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성호는 『이자수

77 이봉규,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의 실학: 반계와 성호의 경우」, 『철학』 65(2000).

78 『下學指南』 卷首, 「日用編」 참조.

어』 서문에서 공자로부터 주자에서 퇴계로 이어지는 도통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신은 퇴계의 뒤를 잇고자 하는 계승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정리한 퇴계학술을 총결하고자 했고, 그 결과가 『이자수어』의 편찬이다. 그러므로 『이자수어』는 성호의 도통의식에 따라 작성된 퇴계의 언행록이자 덕행의 실천적 지침서로써 명실상부한 조선 성리학의 교과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後漢書』, 『論語』, 『孟子』, 『中庸』, 『日省錄』.

權斗經, 『蒼雪齋集』.

趙翼, 『浦渚集』.

李栽, 『密菴集』.

李滉, 『退溪集』.

李瀾, 『星湖全集』.

____, 『星湖僊說』.

____, 『中庸疾書』.

安鼎福, 『順菴集』.

尹東奎, 『邵南遺稿』.

____, 『邵南 尹東奎 書簡』.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道東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7547-v.1-2).

2. 단행본

이광호 역, 『이자수어: 성호 이익이 가려 뽑은 퇴계학의 정수』. 예문서원, 2010.

홍승균·이윤희 공역,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1999.

3. 논문

권문봉, 「성호 경학의 몇 가지 문제: 『맹자질서』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2008, 1153-1176쪽.

김경하, 「퇴계 이황의 형이상학 연구: 『이자수어』 「도체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학수, 「성호 이익의 학문연원: 가학의 연원과 사우관계를 중심으로」. 『성호학보』 1, 2005, 57-112쪽.

신채용, 「『성호전집』 묘도문자를 통해서 본 이익의 남인의리」. 『조선시대사학보』 80, 2017, 205-255쪽.

신항수, 「홍계희의 편찬 및 간행활동과 도통의식」. 『역사와 담론』 66, 2013, 143-166쪽.

- 이봉규,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의 실학: 반계와 성호의 경우」, 『철학』 65, 2000, 63-94쪽.
- 임종진, 「주자와 퇴계의 성리사상비교: 장백행의 『속근사록』과 성호 이익의 『이자수어』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41, 2007, 5-34쪽.
- 정도원, 「성호 이익의 퇴계 읽기와 학과분열: 성호와 근기남인의 학문적 접점과 동도론의 괴리」, 『유교사상문화연구』 58, 2014, 387-424쪽.
- 정재훈,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 『국학연구』 23, 2013, 108-148쪽.
- 조성산, 「조선후기 성호학의 '지역성' 담론」, 『민족문화논총』 60, 2013, 25-56쪽.
- 함영대, 「소남 윤동규의 학술과 성호학파: 저작과 교류를 중심으로」, 『장서각』 37, 2017, 64-93쪽.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이자수어』의 학술적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해 그 편찬과정을 검토했다. 『이자수어』는 성호가 젊은 시절 퇴계의 문집과 저작 그리고 언행록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채록해 둔 『도동록』을 윤동규와 안정복과 함께 개정하여 편찬한 것이다.

안정복은 『이자수어』 편찬 실무를 담당하면서 편차의 구성이나 조목의 발췌하는 데는 윤동규의 견해를 수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성호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했다. 안정복은 『이자수어』의 편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퇴계학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에 이 책을 초학자의 입문서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개정과정에서 성호는 퇴계를 이자(李子)로 지칭하면서 도통의식을 나타내는 도동이라는 말을 버리고 책의 제목을 『이자수어』로 고쳤다. 성호는 학문적인 명망이 알려지면서 경기남인의 정치적 명분을 확립을 위해 묘도문 작성 등을 통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했는데,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완전히 좌절되면서 『이자수어』 편찬에 착수한 것이다. 경기남인이 주장하는 학문적 계보는 성호가 퇴계를 주자의 적전(嫡傳)이라고 하는 도통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호는 『이자수어』 서문에서 공자로부터 주자에서 퇴계로 이어지는 도통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퇴계를 이자로 지칭하는 『이자수어』는 퇴계의 언행록을 넘어 덕행의 측면에서 유교적 실천 모델을 퇴계에 두고 기획된 것으로, 명실상부한 조선 성리학의 교과서로 편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9. 9. 23.

심사일 2019. 10. 17.

게재 확정일 2020. 2. 7.

주제어(keyword) 이자수어(李子粹語, *Yi-Ja-Su-Eo*), 도동록(道東錄, *Do-dong-lok*), 이자(李子, *Yi-Ja*), 도통(道統, *Dotong*), 경기남인('Nam-in' in Near-capital Area), 언행록(memoir)

Abstracts

Yi Ik's Yi-Ja-Su-Eo(李子粹語): succeeding the thought of Toegye Park, Ji-hyun

The present study reviews the compilation of Seongho Yi Ik's Yi-Ja-Su-Eo(李子粹語) and aims to redefine its academic significance. Yi-Ja-Su-Eo is a revision of Seongho's Do-dong-lok(道東錄) by his disciples Yun Dong-gyu(尹東奎, 1695-1773) and Ahn Jung-bok(安鼎福, 1712-1791). Ahn, who was in charge of the compilation, reflected Yun's opinions in regard to the composition as well as the selection of excerpts, but the book primarily remained faithful to the intentions of Seongho as stated in the Introductory Remarks(凡例). Great care was taken to edit the book following the format of Geun-sa-rok, though without compromising the original purpose of Do-dong-lok. For Ahn, the compilation of Yi-Ja-Su-Eo served as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thought of Toegye, and the book was later used as a primer in teaching disciples.

During the revision process, Seongho dropped the word Dodong(道東), which had carried implications of Confucian Dotong(道統), and referred to Toegye as Yi-Ja(李子), although this by no means indicates an abandonment of Confucian Dotong itself.

As his scholarly fame rose, Seongho participated in political activities including writing epitaphs serving to politically justify and establish the Nam-in in the Near-capital Area(京畿南人). When his advancement into the central political stage was frustrated, however, he turned to the compilation of Yi-Ja-Su-Eo. The book is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Toegye's scholarship that Seongho studied throughout his life. His sense of Confucian Dotong runs through the entire book. Yi-Ja-Su-Eo goes beyond being a mere memoir of Toegye—it was designed with Toegye as the model of Confucian praxis in terms of virtue. In other words, it was compiled as a textbook of Joseon Confucianism.

